

협력과 경쟁을 통한 진정한 산업화를 꿈꾸다

2010 ESCO 송년회

지난 11월 17일 오후 5시 팔래스 호텔 로얄 볼룸에서 'ESCO 산업 활성화방안'에 대한 친목 도모 및 발표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여러 회원사가 함께 다사다난했던 2010년을 마무리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내년부터 도입될 ESCO 분야의 새로운 정책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발표의 시간도 가지며 정보 공유의 장이 되었다. 사진 최미연





2010년, ESCO 경쟁력을 재확인하다

이번 송년회는 ESCO 협회 회원사를 비롯해 지식경제부, 에너지 관리공단, 전주대 산학협력단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ESCO 협회와 전주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 발표를 실시했으며 지식경제부 권오정 과장이 '2011년 ESCO 산업 활성화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이범용 ESCO 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내년도 ESCO 정부 예산이 6,000억원 규모로 편성되는 등 ESCO업계는 대단한 변화의 시점에 와있다. 정부가 ESCO 업계에 기회를 준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모습을, 고용창출·기술개발, 해외 진출 등 업계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며 "이번 송년회는 ESCO협회와 전주대학교가 진행하는 연구 용역의 중간 점검으로 이번 발표를 통해 내년도 사업을 잘 구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전주대 산학협력단 조성환 교수의 'ESCO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내용 소개로 이어졌다.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에너지 절약전문기업협회에서 공동 연구한 이 연구의 추진 배경으로 전세계 온실가스를 적정수준(450ppm이하)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30년까지 10.5조 달러의 에너지 효율개선 투자 소요(IEA)된다는 세계적인 여건과 국내여건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발효(4.13)에 따라 산업, 건물, 교통 등 분야별로 강력한 에너지절약 추진기반 정립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 투자 회수기간이 10년 이상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ESCO는 단기간(3~5년)에 실현 가능한 녹색성장 산업이라는 점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성환 전주대학교 교수는 'ESCO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중간 점검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신계약모델, 적격심

사 기준, 평가 체계는 ESCO 분야의 경쟁도입,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성과보증제 확산, 전문인력 양성, 해외투자 활성화 등에 목표를 두고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새로운 계약모델은 내년부터 성과보증계약을 우대해 주는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성과배분계약과 보증계약의 혼합 형태로 사업의 재원은 ESCO 업체가 조달(성과배분제)하고 기존보다 강화된 에너지절감량을 평가·검증하는 M&V 계획서 및 결과서(성과보증제)를 추가해야 한다.

새로운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의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여기에 ESCO 분야에 맞춰 배정한도나 입찰 가격 배점은 조정이 된다. 기존 적격심사기준의 사업효과 부분에 에너지절감량 항목을 추가해 에너지절감량이 큰 사업일 경우 우대하고 ESCO 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용역수행능력 부분에 계약형태와 에너지진단 항목을 추가해 성과보증방식과 에너지진단을 실시한 경





우 우대한다. 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보다 강화된 M&V 계획서 및 결과서도 평가 항목에 추가했다.

ESCO 업체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계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두 방안이 제시됐다.

평가 항목에는 신계약 모델이나 성과보증 계약 적용, 업계기여도,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해외진출, ESCO 기술 개발, ESCO 교육 실적 등이 적용된다. ESCO협회는 이날 발표된 중간 결과와 함께 ESCO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11년, ESCO 산업화를 위해 협력하다

지식경제부 권오정 과장은 에너지절약의 산업화를 위한 ESCO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2011년은 ESCO가 국내 산업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하며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권 과장은 “ESCO협회의 법정기관화 추진과 정책자금을 현 135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며 “외부에서 정책자금 확대에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새로운 ESCO 적용 분야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물부문에서 가정의 ESCO활성화를 위해 아파트전용 ESCO 브랜드 “SAVE (Save Apartment Via ESCO)” 도입 방안으로 시장을 창출하기로 했고,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의무진단 결과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고(10% 이상)경제성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의 ESCO 추진을 집중지원하기로 했다. ESCO 신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제조·화학 공정 등에 IT 기술을 적용한 사업모델 검증 및 시범사업 지원 (11년 12억원)과, 장기 대형사업 지원을 위해 단일사업의 지원한도를 확대 (150→250억원)하고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ESCO를 산업화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정책 의지를 담아낸 목표를 정립했고, 정책방향은 먼저 시장 확충 신시장 개발을 위해서는 건물 부분에 대한 관심을 기



올이고 산업 부분에 있어서 수요, 온실가스목표관리제에 따라 ESCO 기업이 사업 분야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총리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 개정을 앞두고 있지만 1만 평방미터 이상 되는 공공기관보유건물일 경우 진단을 해서 에너지절감효과가 5%이상 되고 에너지 회수 기간 10년 이하인 건물에 한해 에너지 추진산업을 의무화하는 추진 중"인 계획에 대해 밝혔다.

ESCO산업 발전방안 중점추진 과제로 ① ESCO자금 배정 시 절약효과, 성과보증 여부, 민간자본 활용도 등을 평가하여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 ② 대·중소 컨소시엄 구성 시 중소기업 지분비율에 따라 우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 ③ 종합적 관점에서 에너지 절약 시스템 설계가 가능한 고급 컨설팅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 ④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자금은 해외 투자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ESCO 펀드'로 해외사업에 투자하는 방안 등 ESCO사업의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에너지 관리공단 손학식 본부장은 축사에서 "기업 간에 단합과 화합으로 ESCO가 우리나라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역량을 발휘해주시길 바란다고 ESCO의 발전을 기원했다.

2011년에는 ESCO 활성화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진정한 산업화를 이루고 국내 산업을 이끄는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에너지관리공단
손학식 에너지관리본부장



이범용 ESCO협회장



지식경제부 진봉준 사무관

